

2011 EFY 특집 기사



믿음과 소망, 인내의 바다를 항해하다

취재: 전건우/사진 촬영: 박광선, 이현규, 황동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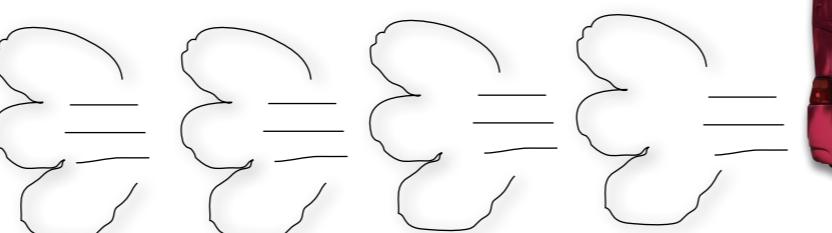
수의 여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와 잘 익은 태양이 사이 좋은 친구처럼 어우러졌고 그 사이를 시원한 해풍이 시샘하듯 넘나들었다. 시내 곳곳에는 크고 작은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펼리이고 있었다. 여수시 둔덕동에 소재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는 도시 전체를 맴도는 화려한 분위기에서 한발 비켜나 한적하고 조용했다. 방학을 맞아 썰물처럼 빠져나간 학생들의 빈자리를 길 잊은 바람만이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25일, 유독 햇살이 찬란했던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시작으로 여수 캠퍼스도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관광버스들이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섰고 기숙사 옆 주차장에서는 쉴 새 없이 음악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춤을 췄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기쁨의 포옹을 나누었다. 푸르디 푸른 젊음과 젊음이 만나 여수 앞바다의 파도처럼 넘실거렸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위로 한 장의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을 가득 머금은 듯처럼 힘차게 펼리거렸다.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11 Especially For Youth 믿으며 바라며 견디자'

항해를 시작하다

나는 카메라 셔터를 쉬지 않고 눌렀다. 망원렌즈 안에는 버스에서 내리는 청소년들의 표정이 시시각각으로 잡혔다. 고문들의 열렬한 환호에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는 청소년도, 낯선 분위기에 긴장했는지 얼굴이 굳은 청소년도 있었다. 사진은 참으로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드러낸다. 작년 SMYC 때도 입소하는 청소년들의 표정은 지금과 비슷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들의 표정은 바뀌었다. 금요일 저녁에 찍은 사진 속에는 보는 이마저 미소 짓게



만드는 충만한 행복감이 가득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기를 바라며, 나는
청소년들의 얼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청소년들의 헤어스타일은 올해도
뜨거운 감자였다. 요즘처럼 멋
부리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평범한
상고머리에 염색도 못한다니
곤란할 수밖에. 언젠가 한 번은
청남들에게서 구레나룻은 생명과
같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들었던 적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머리카락이 길거나 염색을
한 청남청녀들이 꽤 눈에 띄었다.
길게 줄을 선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런 청남청녀들을 대회 본부에서
마련한 간이 미용실로 인도하는
것도 고문들의 몫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미용실로 향하는 한
청남에게 물었다.
“머리 자르려 가는 거야?”
“네.”
“자르고 오지 그랬어?”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서 잘라
주신다니까 그냥 왔죠.”

청남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쿨’하게
웃어 보이더니 똑 같은 헤어스타일의
친구 몇 명과 함께 미용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른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각오를 하고 왔다는 듯 고문들의
지적에 가타부타 말 없이 미용실로
향했다. 몇몇 청소년들은 기념
사진이라도 남기려는 듯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내게 “형제님 좀 찍어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으며 손으로
브이(V)자를 그렸다. 머리카락을

자르냐 마느냐로 실랑이를 벌이느라
입소 시작부터 정신이 없었던 작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지난 일 년
사이 이 땅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은
딱 반 보만큼, 그러니까 고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미용실로 향할
만큼 성장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고작 반 밖에 안 되는 미약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그 반
보는 크나큰 용기의 증거이자 신앙의
행사였다. 아무렴, 어른과 청소년의
보폭은 다르니까.

EFY가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모임의 구성에서 알 수 있다.
입소 이후 곧바로 다 함께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대신 조별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순서가
먼저 배치되었다. 조별 모임 동안





청소년들은 다양한 게임을 통해 서먹함을 없애고 서로의 간극을 좁혀 나갔다. 나무 그늘 밑에 둥그렇게 둘러 앉은 청소년들은 참새처럼 재잘재잘 떠들다가도 이따금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고문들은 그 사이에 서서 근엄한 안내자가 되기도 했다가 게임 진행자가 되기도 했다가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광대가 되기도 했다. 부산에서 왔다는 한 청남이 손을 들고 물었다.

“왜 이렇게 더워요?”

그러자 작년에도 참석했음이 틀림 없어 보이는 한 청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작년에 비하면 시원한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매 고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트로

청소년들에게 부채질을 해 주기 시작했다. 날개를 펼쳐 그늘을 만들어 주는 어미 새처럼 그렇게.

EFY는 긴 항해와 같다. 청소년들은 낯설고 긴장감 넘치는, 하지만

즐거움의 포말이 이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 고문들은 맨 앞에 서서 청소년들을 이끌지만 실제로 배를 움직이는 역할은 모두 청소년 스스로가 맡아야 한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내리쬐는 태양과 싸우는 등 여러 역경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끝에는 행복이라는 약속의 땅이 있음을, 작년의 SMYC가 이미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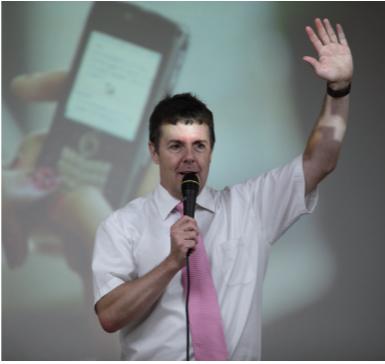
다시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맞춘다. 입소 후 불과 몇 시간이지만 그 사이 청소년들의 표정은 조금 변했다. 어딘가에서 소금기 가득한 바람이 불어왔고, 항해는 시작되었다.

믿다

교리와 성약 29편에서 주님은 “내게 있어 만물은 영적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조금 빌리자면, “EFY의 모든 모임은 영적”이다. 가장 활동적이라는 무도회에서도 영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작년, 그러니까 SMYC에 가기 전에 내가 다니는 와드의 청남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지레 겁을 먹고는 안 갈 수 없느냐고 물었다. 지켜우리라 착각했던 거겠지.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EFY 일정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공과를 보고 겁을 먹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공과뿐이면 참을 만한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전 공부를 해야 하니 걱정이 앞서는 것도 당연한 일. 하지만 ‘일단 한 번 드셔보시라’는 옛 유행어를 믿고 참석한 청소년들은 하나 같이 영적인 맛에 흠뻑 빠졌다.

올해의 공과는 작년보다 더 다양한 주제와 강사들로 맛있게 벼무려졌다. 이미 그 명성을 듣고 왔는지 공과에 임하는 청소년들의 자세도 달랐다. 잠과 사색의 중간쯤에서 허우적거리는 청소년들은 소수고 대다수는 경전과 필기도구를 이용해 맛있는 공과를 섭취하기 바빴다.



EFY에서 전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지극히 단순하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가 구주이시며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 교회를 다니는 동안 귀에 뜻이 박히도록 들어서 외울 정도가 되어 버린 이 이야기는, 그러나 힘이 세다. 진실이 가지는 그 힘은 어떤 방법으로 전해진, 그리고 듣는 대상이 누구건 간에 마음 속 깊이 파고들어 영혼을 잔잔하게 뒤흔든다. 연예인에 열광하고 게임에 심취하던 청소년들이 강사들을 향해 환호를 보내고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는 이유도 다 그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EFY 동안만은 총관리 역원과 지역 칠십인들이, BYU-하와이의 휠라이트 총장이, 로버트 할리와 종교 교육원 교사들이, 그리고 그 외 수많은 강사들이 청소년들의 영웅이었고 연예인이었다.

청소년들은 EFY에서 믿음을 배운다. 주님을 믿는 법을 배우고 가족과 친구를 믿는 법을 배우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운다. EFY에서의 하루는 그 믿음이 더해져 가는 과정이다. 일 년 만에 한국을 찾은 Bless 4는 공과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쓴 편지의 첫머리를 읽기도 전에 눈물을 흘렸다. 편지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했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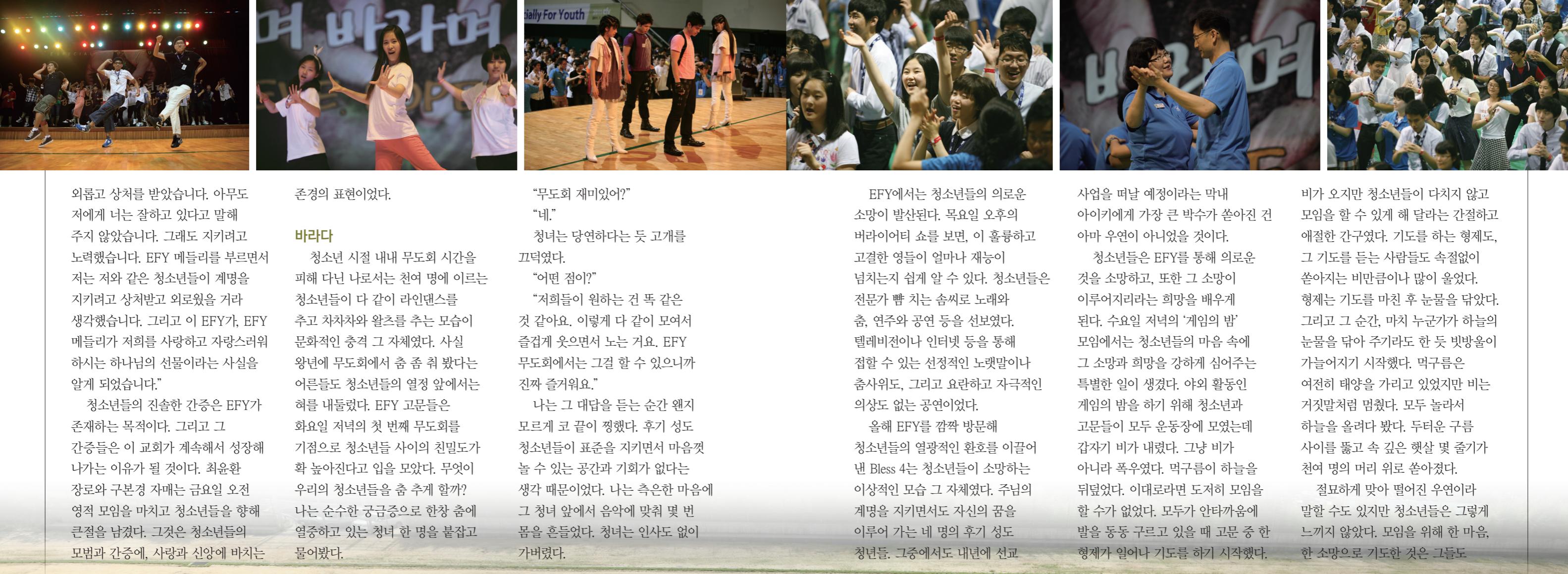
이 경륜의 시대가 유혹과 절망으로 가득하고 어둡기만 하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EFY에 와서 청소년들의 간증을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EFY에서는 청소년들의 영적인 발전이 정점에 달하는 목요일 저녁에 간증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이 되면 이 땅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영혼들인지 확실히 알게 된다. 한 청남은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의 반대로 저는 매주 몰래 교회에 참석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지부에는 청소년이 적어서 제가 빠지면 성찬을 전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이 청남의 간증을 듣는 동안 내 마음 속의 둑이 무너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또 다른 청녀의 간증 또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저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저는 너무





외롭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너는 잘하고 있다고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EFY 메들리를 부르면서 저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상처받고 외로웠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EFY가, EFY 메들리가 저희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진솔한 간증은 EFY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그 간증들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최윤환 장로와 구본경 자매는 금요일 오전 영적 모임을 마치고 청소년들을 향해 큰절을 남겼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모범과 간증에, 사랑과 신앙에 바치는

존경의 표현이었다.

바라다

청소년 시절 내내 무도회 시간을 피해 다닌 나로서는 천여 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라인댄스를 추고 차차차와 월츠를 추는 모습이 문화적인 충격 그 자체였다. 사실 왕년에 무도회에서 춤 좀 춰 봤다는 어른들도 청소년들의 열정 앞에서는 혀를 내둘렀다. EFY 고문들은 화요일 저녁의 첫 번째 무도회를 기점으로 청소년들 사이의 친밀도가 확 높아진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이 우리의 청소년들을 춤 추게 할까? 나는 순수한 궁금증으로 한창 춤에 열중하고 있는 청녀 한 명을 붙잡고 물어봤다.

“무도회 재미있어?”

“네.”

청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점이?”

“저희들이 원하는 건 똑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웃으면서 노는 거요. EFY 무도회에서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즐거워요.”

나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웬지 모르게 코 끝이 찡했다. 후기 성도 청소년들이 표준을 지키면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측은한 마음에 그 청녀 앞에서 음악에 맞춰 몇 번 몸을 흔들었다. 청녀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EFY에서는 청소년들의 의로운 소망이 발산된다. 목요일 오후의 버라이어티 쇼를 보면, 이 훌륭하고 고결한 영들이 얼마나 재능이 넘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전문가 뺨 치는 솜씨로 노래와 춤, 연주와 공연 등을 선보였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선정적인 노랫말이나 춤사위도, 그리고 요란하고 자극적인 의상도 없는 공연이었다.

올해 EFY를 깜짝 방문해 청소년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이끌어 낸 Bless 4는 청소년들이 소망하는 이상적인 모습 그 자체였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 네 명의 후기 성도 청년들. 그중에서도 내년에 선교

사업을 떠날 예정이라는 막내 아이들에게 가장 큰 박수가 쏟아진 건 아마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EFY를 통해 의로운 것을 소망하고, 또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배우게 된다. 수요일 저녁의 ‘게임의 밤’ 모임에서는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그 소망과 희망을 강하게 심어주는 특별한 일이 생겼다. 야외 활동인 게임의 밤을 하기 위해 청소년과 고문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였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 그냥 비가 아니라 폭우였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이대로라면 도저히 모임을 할 수가 없었다. 모두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고문 중 한 형제가 일어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비가 오지만 청소년들이 다치지 않고 모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간절하고 애절한 간구였다. 기도를 하는 형제도,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도 속절없이 쏟아지는 비만큼이나 많이 울었다. 형제는 기도를 마친 후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하늘의 눈물을 닦아 주기라도 한 듯 빛방울이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은 여전히 태양을 가리고 있었지만 비는 거짓말처럼 멈췄다. 모두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 봤다. 두터운 구름 사이를 뚫고 속 깊은 햇살 몇 줄기가 천여 명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우연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모임을 위해 한 마음, 한 소망으로 기도한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청소년들은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게임의 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가는 비가 오라가리했지만 방해를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날은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여수의 강수량은 0.5밀리미터였다.

견디다

떠들기 좋아하고 작은 일에도 큰 웃음을 터트리는 청소년들이 가장 진지해지는 순간은 바로 음악과 노년의 모임을 할 때이다. 음악과 간증을 통해서 복음의 참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고요한 모임은 청소년들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통해서 진행된다. 청소년 합창단은 3박 4일 동안 자신의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틈틈이 연습을 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준비지만 그들이 들려주는 합창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청소년 합창단은 간결하고 진실한 간증 뒤에 아름다운 찬송을 덧붙였다. 주 섬기라, 주 예수를 닮으려고,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내 구주 살아 계시다 등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들은 청소년들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통해 참석한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합창의 묘미는 각자 다른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이는데 있으리라. 청소년 합창단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간증을 했고, 그것은 묵묵히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수많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그들은 찬송을 통해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이 경륜의 시대를 후기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노력해야 했던 그 시간들, 때로는 상처도 받았을 것이고 때로는 힘겨움에 눈물도 흘렸을지 모르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청소년들은 합창을 통해 느끼고 EFY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EFY의 가장 큰 미덕은 지금까지 잘 견뎌온 청소년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고, 앞으로 잘 견딜 수 있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청소년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EFY에 참석하면서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이고 자신들이 지켜온 이 계명과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또 말한다. 함께 EFY에 참석했던 천여 명의 친구들이 있는 한, 새벽까지 서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한, 함께 노래 부르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한, 한 마음으로 웃고 박수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한,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이제 막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자신만의 신앙을 가지고 싶어 EFY에 참석했다는 한 청남이 이렇게 간증했다.

“지금까지는 신앙개조 13조를 그냥 알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EFY에 참석해서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다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EFY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고문들이 EFY 메들리를 부르는 것으로 이 위대한 모임의 막이 내렸다. 금요일 밤, 체육관에 울려 퍼진 EFY 메들리는 그 전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강한 영을 느끼게 했다. 지휘자도 울었고 청소년들도 울었다. 앞에 선 고문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고 그 위로 뜨거운 눈물 방울이 떨어졌다. 최윤환 장로 부부와 지역 칠십인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리라 마음 먹고 잔뜩 힘을 준 내 눈도 어느새 흐려졌다. 노트에 적은 글씨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만 이렇게 적을 뿐이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뜻을 펴다

5박 6일의 긴 항해를 마친 EFY 호는 이제 그 뜻을 접었다. 토요일

아침, 배에서 내린 청소년들은 석별의 정을 나누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직 항해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 어쩌면 진짜 항해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세상이라는 더 넓고 험한 바다가 청소년들 앞에 기다리고 있겠지만, 믿음과 소망, 인내의 바다를 헤쳐 온 그들에게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으리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의 얼굴에 다시 카메라 초점을 맞추었다. 기적처럼 달라진 그 표정들을 보며 나는 그들의 남은 항해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다시 뜻은 펼쳐졌고 이제 그 키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그리고 각 단위 조직의 청소년 지도자와 부모들에게 돌아갔다. 그 동안 믿으며, 바라며, 견디어 왔으니, 앞으로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으리라. 항해는, 다시 시작되었다. ■



한국을 떠나는 닐슨 장로 부부

공

보선교사로 봉사했던 닐슨 장로 부부가 부름을 마치고 한국을 떠난다. 두 사람은 다섯 번째 선교 사업을 마쳤는데 그 중 네 번이 한국에서의 봉사였다. 전임 선교사, 선교부 회장, 성전 회장으로 봉사한 닐슨 장로는 한국 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한국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언제고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닐슨 장로의 간증을 소개한다.

한국으로의 선교사 부름

저는 1962년 1월부터 북극동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북극동 선교부는 일본과 오키나와의 소규모 지방부, 한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는 일본 문화와 역사, 언어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읽으며 준비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도쿄를 향해 떠났습니다. 폴 앤드루스 북극동 선교부 회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를 접견했습니다. 회장님은 6년 이상을 회장으로 봉사해오고 계셨고, 매우 엄격하시고 진지한

분이셨습니다. 접견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닐슨 장로님, 교회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제대로 대답하려 애쓰면서 말을 더듬으며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바로 “좋습니다. 장로님은 한국 지방부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실망과 충격이 커서, 제 마음속엔 이미 일본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 석 달 동안 일본어를 부지런히 공부해 왔다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히라가나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 선교본부에서 “하루 닫기”를 할 때 일본어 찬송가 책을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일본에 남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저는 무슨 일이든 일어나 제가 한국에 가지 않게 되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전도에 대한 추억

가장 좋아하는 전도 방법은 길거리 전도였습니다. 네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선교사들이 시내의 봄비는 곳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구경꾼이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 하나가 영어로 말을 하고, 다른 선교사가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높은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머지 선교사들이 소책자를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토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국인 선교사였던 한인상 장로가 영어로 말하고 제가 한국어로 통역하면 사람들의 호기심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길거리 전도는 게일 카 선교부 회장님이 천으로 된 판에 간단한 복음 토론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복음 도형들을 여러 장 붙여 커다란 전시판을 만들면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이렇게 하면 보통 오십 명 이상이 모이곤 했습니다.

한국과의 거듭된 인연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그분의 왕국 건설을 위해 우리가 봉사해야 할 곳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었다면, 성도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1962~1964년에는 북극동 선교부 선교사로, 이후 1992~1995년에는 서울 서 선교부 회장으로, 2000~2003년에는

한국 서울 성전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공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면서 우리는 한국 문화 속에서 훌륭한 경험들을 많이 했고 좋지 않은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봉사 기회 모두 점차 더 유쾌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현대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나라는 서구 국가들이 몇 세기에 걸쳐 이룬 발전을 단 몇십 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런 현대적인 문명의 이기들은 아내와 함께 한국에 돌아왔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봉사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추억들은 아름다운 한국 성도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은 항상 저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과 인연을 만들면서 살아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선교 사업 후 10년이 지난 뒤에 제 동생 로키 닐슨이 한국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우리 아들 마이커는 1993~1995년에 한국 대전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우리 딸 론다는 한국 서울 선교부의 귀환 선교사인 트로이 포스터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한국 서울 서 선교부에서 우리와 함께 봉사했던 두 자매 선교사는 우리 아들들과 결혼했습니다. 헤더 변행 자매는 브라이스 닐슨과, 크리스티나 장은 마이커 닐슨과 결혼한 것입니다. 물론 제 아내 루비는 제 동반자로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우리 직계 가족 중에서 일곱 사람이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12번 하면서, 총 28년을 한국에서 봉사한 셈입니다. 우리 가족이 더 많아지고 또 한국에서 교회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 아마도 미래에는 더 많은 인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조금이나마 할 기회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다

-교회 역사 위원회 출범-

역

사학자인
에드워드
카(Edward
H. Carr)는 자신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말을 남겼다. 이



뒷줄 원쪽부터: 전건우 형제, 정태걸 형제, 이원강 형제, 이정은 형제, 서희철 형제,
배덕수 장로, 닐슨 장로

유명한 말은 현재는 과거의 영향을 받고,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작년 6월 한국 교회 역사 고문으로 부름 받은 서희철 형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지 60년이 되어 가는 지금,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한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서희철 형제는 그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지난 일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가 탄생했다. 역사학자에서부터 교수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섯 명의 위원들은 과거를 복원하고 현재를 기록하는 일을 통해 한국 교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올창한 숲을 이루게 된 과정을 역사책에 담을 예정이다. 역사 위원회는 한국에서 봉사한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개인 기록과 교회 본부에서 보관 중인 한국 교회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한국에서 복음을 개척한 오랜 회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살아 있는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일의 일환으로 한국 교회 공식 웹사이트(lds.or.kr)에 역사 위원회 페이지를 개설해서 역사책에 실을 내용을 정기적으로 연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재 분 중 일부를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 소개해 점 더 많은 회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역사의 한 페이지로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가 더 중점을 두는 것은 ‘현재의 기록’이다. 현재가 미래의 과거라는 사실을 잘 아는 역사 위원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회원들의 기록을 담기 위한 여러 방법을 구상 중이다. 그 중 하나가 각 와드의 연례 역사 기록 담당자이다. 현재는 각 와드의 서기가 일년에 한 번씩 와드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역사 기록의 전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와드 별로 연례 역사 기록

담당자를 두고, 그 담당자가 와드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을 기록하는 한편 와드 회원 개개인의 간증까지도 수집하게 할 계획이다. 연례 역사 담당자는 공식적인 부름은 아니지만 스테이크 회장이나 지방부 회장 등의 재량으로 부름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 기록이 큰 모임이나 신권 지도자 중심이었다면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가 추진하는 방향은 좀 더 개인적이다. 즉, 작은 지부의 평범한 회원이라도 한국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작은 간증과 하나의 작은 신앙이 모여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쌓아가고, 그렇게 쌓아 올린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 위원회의 역할이다.

새 것은 옛 것에 감추어져 있고, 옛 것은 새 것 속에 있나니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가 추진하는 일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섯 명의 위원들만으로 해결되는 일도 아니다. 한국 교회의 회원 모두가 도움을 주어야 하고, 주체적으로 역사의 기록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우리가 김호직 형제의 개종담을 듣고, 한국에서 교회가 발전해 나간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받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한 줄의 일지와 간증 또한 후대의 누구에게는 경륜의 시대를 살다 간 신앙의 선배가 쓴 감동적인 기록으로 읽힐 것이다. 한국의 교회 역사는 바야흐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과거와 현재가 대회를 시도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어지고 기억은 희미해져도 기록은 남는다.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가 그 첫 펜을 들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5명/해외 1명



김민수 장로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서울 선교부



손훈식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
대전 선교부



김인규 장로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부산 선교부



조성현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
부산 선교부



김정근 장로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필라델피아 선교부



최윤아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부산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감독: 김인권(전임: 최중배)
충장 와드 감독: 최양선(전임: 최정주)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와 영천 지부가 수성 와드로 통합
수성 와드 감독: 변창기(전임: 박재성(영천 지부))

순청 지방부

지방부 회장: 김태완(전임: 배기준)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감독: 정기환(전임: 박성률)

청주 스테이크

온양 지부 지부 회장: 이우관(전임: 승영현)

정정 기사

2011년 8월호 지역 소식 8쪽의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중 박창언 장로의 소속 와드를 “강동 와드”로 정정합니다.

*lds.or.kr*을 통해서도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지역 소식과 회원 동정을 접할 수 있습니다.